

사업구분 : 기본연구(기관고유)	Code 구분 : SS0202	농업인 복지(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모델개발	'05	경기도원 작물연구과 서명훈(229-5786)
장수마을 어메니티와 영농규모 및 영농활동 모델 개발연구	'05	경기도원 작물연구과 서명훈(229-5786) 참여연구원 : 이원석, 전명희
색인용어	농촌, 어메니티, 장수마을, 영농규모,	

ABSTRACT

This investigate aimed determination of critical age and scale for farming in old farmers with examination about farming of long life persons in longevity village.

It was investigated total 39 persons in Gyeonggi Province Yangpyeong and Namyangju, Cholladobuk-do Sunchang, Chollanam-do Damyang and Kangwon-do Injae.

Respondent average age was 76 years old, and average area under cultivation was 1,733 p'yong. A person to do succeed to the family farming was not more for 21% among 39 persons, and 81% among 39 persons was doing poor life that security for the aged does not exist entirely.

A person who join for national pension is not more for 18%, and the rest 82% didn't join for it. The 82% among 39 persons was receiving family assistance for living expenses, and 18% was receiving government assistance. Living expenses for a month was the most as 36% at 200,000~500,000 won.

Muscular power decline is begun on 50 years old and was fallen greatly on 70 years old. Muscular power decline was 44% from 70 to 75 years old, 42% from 76 to 80 years old, and under 20% after 80 years old at the standard muscular power of twenties. The size of farm was shrunk by 2,738 p'yongs in under 60 years old, 2,326 p'yongs in sixties, and 1,750 p'yongs in seventies according to age passage. Age that give up farm work was 75 years old of 59% among respondents, and a person that will farm was 30% until force holds up after 75 years old. If we take into account muscular power of old mans or health degree, farm work seniority of old mans was estimated by 75 years old.

Longevity area as Sunchang, Damyang and Injae was high latitudes and its precipitation was more than national average 1,225mm as average 1,386mm. Altitude of the area was higher than 100m of average of Korea as average 250m. The environmental resource of nature ecosystem had characteristics of longevity area to mountains highland and regional amenity was rich.

Key word : Amenity, Muscular, Size of farm

1. 연구목표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는 농촌사회에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새로운 귀농세력의 유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농촌사회의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촌사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침체되어 있다. 1965년에 농가인구 비율이 55%이었는데 1990년에는 15.5%로 25년간 무려 40%나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7.4%까지 줄어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4%의 농가인구에서 5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는 55.4%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 문제로써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시니어 콤플렉스 (Senior Complex)’를 장수벨트 지역에 집중 육성하는 것인데, 실버타운이 돈 많은 상류층의 노후시설에 비해, 도시 중산층 은퇴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지역 노인들이 적당한 일거리를 갖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전국 각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경기지역 8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모두 100곳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수마을에 대한 어메니티를 파악하고 장수자의 영농활동과 영농규모 등을 조사 분석하여 고령자의 영농한계 연령과 영농규모를 알아내어 도시 은퇴자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규모의 모델 설정과 영농한계 연령을 구명하여 장수마을 육성 모델을 설정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수벨트로 알려진 전북 순창, 전남 담양, 강원 인제와 농촌진흥청에서 건강장수마을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경기 양평 용문지역과 남양주 와부 지역의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모두 39명을 면접청취 조사한 설문 조사서를 분석하였다.

<표 1> 장수마을 설문조사 지역 및 조사자수

구 분	조사자 수			조사 지역
	계	남	여	
계	39	33	6	9
경기 지역	9	8	1	양평 용문, 남양주 와부
전북 순창	10	5	5	
전남 담양	10	10	0	
강원 인제	10	10	0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 가구현황, 주거상황, 노후 생활 대책과 영농 및 경제활동 실태와 건강 상태 등을 청취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조사자 일반현황

조사자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나 전북 순창이 81세로 가장 많았고 전남 담양과 강원 인제는 76세이었으며 장수벨트가 아닌 경기지역은 72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수벨트 지역에서 조사된 피조사자의 나이가 높게 나타났다. 또, 배우자 생존 여부는 전체 평균이 79%로 장수의 조건에서 배우자가 있는 것이 중요한 요건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표 2 > 피조사자 나이

구 분	나 이 (평균)	결혼 나이	배우자 생존여부(%)	
			유	무
평 균	76	22	79	21
경기 지역	72	23	100	0
전북 순창	81	18	30	70
전남 담양	76	25	100	0
강원 인제	76	24	90	10

조사 대상자의 농지소유는 평균 1,733평이었는데 전북 순창이 637평으로 가장 적었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고령화 되면서 유산 분배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농사로 대를 이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체 조사자 중에서 21%로 나타났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23%나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 56%로 나타났다.

농사로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빈집이 늘어난다는 것이며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표 3> 농지소유 현황

구 분	경작면적(평)		
	계	논	밭
평 균	1,733	1,335	398
경기 지역	1,588	1,125	463
전북 순창	637	530	107
전남 담양	2,478	2,247	231
강원 인제	2,090	1,350	740

<표 4> 농사를 대를 이어지을 자녀 유무(%)

구 분	현재 자녀가 농사를 짓고 있음	장래 농사 이어 받을 예정	아직 모름	없음
평 균	8	13	23	56
경기 지역	0	11	78	11
전북 순창	0	10	20	70
전남 담양	10	30	0	60
강원 인제	20	0	0	80

장수마을의 노인들의 노후대책은 대책이 없음이 81%로 나타나 매우 심각하였고 농지 임대나 농사를 짓는 것으로 노후 대책을 삼은 6%의 사람도 궁여지책이며 연금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겨우 13%에 불과하여 농촌사회의 복지정책이 시급함을 나타내었다.

<표 5> 노후 대책(%)

구 분	대책 없음	농지임대	농사지음	연금 등
평 균	81	3	3	13
경기 지역	66	11	11	11
전북 순창	100	0	0	0
전남 담양	80	0	0	20
강원 인제	80	0	0	20

의료보험료의 납부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이 28% 이었고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였지만 의료보험료를 독자적으로 내는 사람도 31%나 되었다.

<표 6> 의료보험료 납부현황(%)

구 분	의료보험 납입			자녀 부양가족	의료보호 대상
	20,000원 이하	20,000-50,000원	50,000원 이상		
평 균	8	15	8	41	28
경기 지역	11	11	0	78	0
전북 순창	10	10	0	30	50
전남 담양	0	10	10	40	40
강원 인제	10	30	20	20	20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조사자의 82%가 가입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제 첫 실시 때부터 보험료를 납입해도 기본 연수인 2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만든 특례노령연금 수혜자가 18%이었다.

<표 7> 국민연금 가입현황(%)

구 분	가입하지 않음	특례노령연금
평 균	82	18
경기 지역	100	0
전북 순창	90	10
전남 담양	70	30
강원 인제	70	30

조사자의 생활비 출처는 가족들의 일부 보조가 72%, 전부 보조가 10%이었으며 정부에서 기초 생활 보조금이나 참전용사 수당 등 정부 제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18%를 차지하였다.

<표 8> 생활비 재원 출처(%)

구 분	가족일부 보조	가족전부 보조	정부보조
평 균	72	10	18
경기 지역	89	11	0
전북 순창	40	20	40
전남 담양	80	10	10
강원 인제	80	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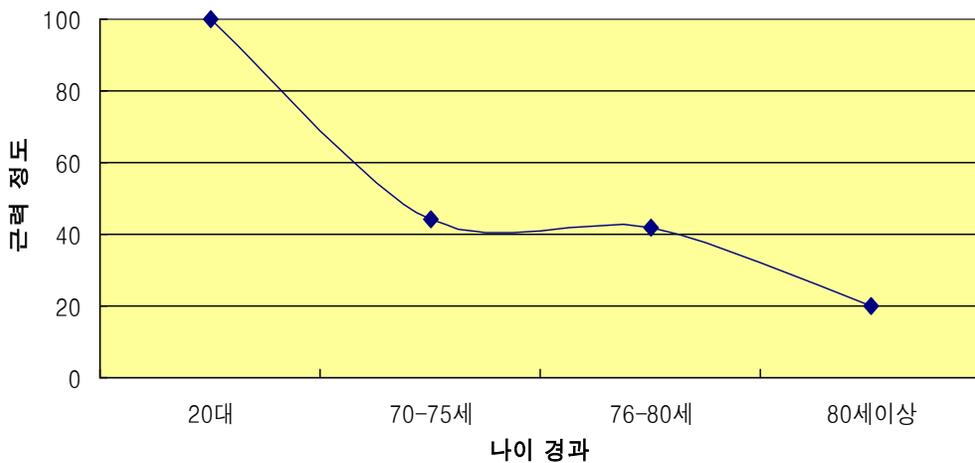
피조사자들의 1개월 생활비는 20~50만원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대가 33%, 100만원 이상이 23%나 되었으며 20만원 미만은 8%에 불과했다. 2인기준 도시근로자 최저 생활비가 910천원인 것에 비해 장수마을의 생활비가 훨씬 작은 이유는 시골에서의 생활이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드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복지 차원에서 시골의 전원 생활은 고령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9> 가구당 1개월 생활비(%)

구 분	20만원 이하	2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 이상
평 균	8	36	33	23
경기 지역	0	0	78	22
전북 순창	20	70	10	0
전남 담양	10	50	20	20
강원 인제	0	20	30	50

나. 영농활동 실태

피조사자의 근력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나이는 피조사자의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20대에 가장 높은 근력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70~80세대에 근력이 젊었을 때 근력보다 40% 가량으로 낮아졌으며 80세 이상의 연령에서 근력이 2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령자의 영농활동은 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근력의 저하로 보았을 때 75세가 영농의 한계 나이로 판단된다.



<그림 1> 피조사자의 연령대별 근력의 변화

피조사자의 나이가 경과함에 따라 영농규모의 면화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60세 이하의 영농규모는 2,738평인데 반해 70대 이후 현재의 영농규모는 1,750평으로 나타나 1,000평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영농규모가 축소된 현상은 8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전북 순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10> 나이 경과에 따른 영농규모의 변화(평)

구 분	60세 이하	60대	70대~ 현재
평 균	2,738	2,326	1,750
경기 지역	2,375	2,475	1,367
전북 순창	2,420	2,425	1,018
전남 담양	3,372	2,459	2,203
강원 인제	2,400	1,983	1,900

연령대별 영농참여 현황은 75세 이하에서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이 57%를 차지하였고 부분참여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90%까지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6세에서 80세까지는 부분 참여가 60%로 나타났고 81세 이상에서는 영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75%로 나타나는 것이 주류이었다. 노인들의 영농규모는 60대에는 2,000여평, 70대에는 1,750평 가량 으로 축소되어 고령화에 의한 근력저하와 영농규모의 합리적인 축소 모델로 간주된다.

박대식(2000)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69세까지는 대부분 영농에 참여하고 70세 이상에서는 부분 참여를 포함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74.4%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 결과와도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표 11> 연령대별 영농 참여현황

구 분	대부분 참여	부분 참여	참여 없음
75세 이하	57	33	10
76-80세	20	60	20
81세 이상	0	25	75

영농에 참여한 피조사자들의 영농의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75세까지는 힘들지 않음이 52%를 나타내었던 반면 76세에서 80세까지는 힘들거나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 사람이 70%를 차지하고 81세 이상에서는 조사자 전원이 영농이 힘들다고

조사되었다. 박대식(2000)은 70세 이상 노인들의 영농에 대한 노동 강도에서 힘들다고 한 사람이 89.5%라고 보고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장수마을 노인들은 노동의 강도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힘이 덜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 특이점으로 지적되었다.

<표 12> 연령대별 농사일 힘든 정도

구 분	감당하기 힘들	힘들	힘들지 않음
75세 이하	20	33	52
76-80세	30	40	30
81세 이상	63	37	0

피조사자의 농사일 마감희망 나이는 59%가 75세를 희망하였고 80세에 그만두겠다고 희망한 사람도 30%나 되어 건강을 감안한 소일거리는 80세까지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인들의 근력이나 건강정도를 감안하여 노인들의 농사일 정년은 75세가 한계로 여겨진다.

<표 13> 농사일을 마감 희망 나이(%)

구 분	65세	70세	75세	80세
평 균	3	8	59	30

다. 노인 건강

노인들의 건강은 평균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으로 연령이 낮았던 경기지역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통 또는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89%나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81세로 고령이었던 전북 순창지역은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판단한 사람이 60%에 이르고 있었다. 또, 평균 연령이 76세이었던 전남 담양과 강원 인제의 경우에는 나쁘거나 아주 나쁜 경우가 각각 40%, 50%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노령화가 되어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표 14> 자신의 건강상태(%)

구 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쁜 편임	아주 나쁨
평 균	3	20	36	31	10
경기 지역	0	33	56	11	0
전북 순창	0	10	30	50	10
전남 담양	10	20	30	40	0
강원 인제	0	20	30	20	30

1년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횟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5회 이상 가는 사람이 46%로 나타나 노환으로 인한 병원이나 약국 출입횟수가 많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 1~2회 가는 사람이 26%, 3~4회 가는 사람이 18%이며 병원에 전혀 가지 않은 사람도 10%나 되었다.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은 건강해서 안가는 사람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사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표 15> 1년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회수

구 분	병원에 안감	1-2회	3-4회	5회 이상
평 균	10	26	18	46
경기 지역	0	22	55	23
전북 순창	10	30	0	60
전남 담양	20	30	0	60
강원 인제	10	20	20	50

다. 어메니티 특성

장수벨트로 알려진 전남 담양, 전북 순창, 강원 인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장수마을은 강수량이 평균 1,386mm로 전국 평균 1,225mm보다 많았다. 장수마을 해발고도는 평균 250m 이상으로 우리나라 평균의 100m 보다 높았다. 자연생태 환경 자원도 산간 고랭지를 낀 강원 인제, 전북 순창, 전남 담양 등지가 장수벨트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지역적 어메니티가 풍부하였다.

<표 16> 자연 생태 환경자원

구 분	요 인
경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 : 중부 내륙 축령산, 천마산, 광릉 수목원, 예봉산과 팔당담 상류 북한강이 어우러짐 · 양 평 : 중부 내륙, 용문산, 북한강와 남한강 합류 양수리, 친환경 농업
전북 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산맥 동쪽 사면 산간지대, 강천산군립공원, 회문산 자연휴양림 · 섬진강 상류 깨끗한 물
전남 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산맥의 추월산(북), 남쪽으로 무등산,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 담양호, 대나무 죽록원, 소쇄원
강원 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설악산을 낀 해발 400m~1,708m 산간 고랭지대 · '94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 전국 제1의 청정지역 · 22세기 보전해야할 아름다운 내설악 장수대 숲(산림청)

문화 역사 자원으로 전북 순창지역은 무형문화재인 판소리를 비롯하여 추령상승촌, 강원 인제 지역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한계산성을 끼고 있으며 백담사

등의 풍광이 수려한 사찰을 갖고 있으며 전남 담양은 소쇄원과 면앙전 등 지역 명승지를 끼고 있어 자연 발생적인 장수벨트로써 손색이 없었으며, 다산 정약용 생가를 끼고 있는 경기 남양주와 용문사를 끼고 있는 경기 양평지역 등도 문화 역사적 어메니티가 풍부하여 장수마을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손색이 없었다.

<표 17> 문화 역사자원

구 분	요 인
경기 지역	· 남양주 : 홍유능, 사능, 다산정약용 생가, · 양평 : 용문사,
전북 순창	· 추령장승촌 · 판소리
전남 담양	· 소쇄원, 면앙전, 식영정, 독수정, 가사문학 본고장
강원 인제	· 백담사 목조아미타불, 봉정암 석가사리탑, 인제향교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한계산성

한편, 사회 경제 공동체 자원으로는 전북 순창의 경우 순창 전통 고추장 마을을 거점으로 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장류, 발효식품의 발달 등으로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 부각되고 있으며, 겨울철 빙어축제, 황태축제, 내린천 레포츠 등을 엮어내어 상품화 시키고 있는 강원 인제, 대나무 특산품을 주제로 한 대나무 축제와 대나무 먹거리 상품을 내놓고 있는 전남 담양과 서울 근교에 자리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와 양평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8> 사회 경제 공동체 자원

구 분	요 인
경기 지역	· 남양주 : 서울종합촬영소 · 양평 : 용문산 산채비빔밥, 개군산수유축제, 고로쇠축제
전북 순창	· 순창전통고추장마을, 향가리유원지, · 장군목유원지, 구송정유원지, 순창장류연구소 설치추진 · 깨끗한 자연환경과 장류, 발효식품의 발달 등으로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 부각, 풍산농공단지
전남 담양	· 대나무축제 · 대나무통밥
강원 인제	· 산채정식, 황태요리 등 먹거리, 만해마을 · 빙어축제, 황태축제, 내린천 레포츠 축제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인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인구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농촌은 아직 근로 의욕과 근력이 충분한 도시은퇴자들을 수용하여 노인층의 인구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시의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시은퇴자들을 생산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적요

본 연구는 장수마을에 대한 장수자의 영농활동과 영농규모 등을 조사하여 고령자의 영농한계 연령과 영농규모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가. 경기 양평 및 남양주, 전북 순창, 전남 담양, 강원 인제 등 4개소 39명의 조사대상자 평균 나이는 76세이었으며, 평균적인 경작면적은 1,733평이었고, 대를 이어 농사지을 사람은 39호 중에서 21%에 불과하였고, 81%가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열악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 나. 국민연금 가입은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82%는 미가입자로 나타났으며 생활비는 82%가 가족보조를 받고 있었고 18%는 정부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1개월 생활비는 20만원 이하가 8%, 20~50만원대는 36%, 50~100만원은 33%, 100만원 이상은 23%로 나타났다.
- 다. 근력 저하는 50대에 시작되어 70대에 크게 저하되었으며, 20대의 근력을 기준으로 하여 70~75세에서 44%, 76~80세에 42%, 80세 이후에 20% 이하로 떨어졌다. 노인들의 영농규모는 60대에는 2,000평, 70대에는 1,750평으로 축소되어 고령화에 의한 근력저하와 영농규모의 합리적인 축소 모델로 간주되며 이것은 장수마을 영농규모의 모델로 적용가능할 것이다.
- 라. 농사일을 마감하는 희망 나이는 75세가 59%로 나타났고 75세 이후에도 여력이 닿을 때까지 짓겠다는 사람도 30%나 되었지만 70세 이하에서 그만두었으면 하는 사람도 11%나 되었다.
- 마. 장수벨트로 알려진 전남 담양, 전북 순창, 강원 인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고 강수량이 평균 1,386mm로 전국 평균 1,225mm보다 많았으며, 해발고도는 평균 250m 이상으로 우리나라 평균의 100m 보다 높았다. 자연생태 환경 자원도 산간 고랭지를 낀 강원 인제, 전북 순창, 전남 담양 등지가 자연생태 환경 자원의 어메니티가 풍부하였다.

5. 인용 문헌

- 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화사회위원회.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 박대식, 정명채, 허장. 2000.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19.
- 박대식. 2004.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1.
- 박은식, 윤순덕, 이명숙, 한경해. 2001. 농촌지역 생활문화 보전 및 가치향상 연구 : 농촌 노인생활 기초조사 연구.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pp.163-178.
- 오현석. 2003. 유럽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 사회활동-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국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세미나 pp.41-57.
- 통계청. 2004. 사회 통계 조사 결과.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 최정화. 1996. 농업인의 건강실태와 문제점.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Vol.7(2) p.161-171.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기초자료 활용